

2021 유노암생

(유일무이 노베를 위한 암기법 with 생2 1단원)

목차

#0. 워밍업

#1. 생명 과학의 역사 암기법

#2. 암기법 요약 정리

#3. 섬세한 개념 설명

#4. EBS에 소개된 2가지 실험

#5. 암기사항 극한훈련(4단계)

#6. 올해 평가원 기출에 적용해보자

#7. 2020 수특/수완 O,X 10제

#8. 자작 문제로 마무리

부록1. 올해 교육청 1단원 기출 모음

부록2. 어디에든 붙일 수 있는 꿀팁 요약 정리본

한 줄 소개

쉽지만 외울 게 많은 생명과학2 1단원을 다룬 시중에 없는 유일한 책, 유노암생

추천 대상

- 1) 2021년 고3 학생 중 내신 선택 과목을 생명과학2로 선택한 학생
- 2) 2022 수능에서 생명과학2를 선택할 학생
- 3) 이제 처음 생명과학2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학생
- 4) 1단원을 하긴 해야겠는데, 암기할 게 많아보여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는 학생
- 5) 1단원에서 꼭 외워야 할 부분을 쉽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학생
- 6) 문제를 풀면 자주 생명과학의 역사 부분에서 헛갈려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

교재를 제작하게 된 계기

2020년에 생명과학2 내신과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단원은 '1단원'이었다. 가장 앞에 있는 단원이라 해야 하긴 하는데, EBS 교재를 보니 줄글로 적혀있지만 해서 머릿속에 쉽게 암기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으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하비, 피르호 등 낯선 인물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면서 1단원이 강화되고, 실제로 모의고사에 꼭 1문제씩은 나오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원이었다. 그래서 나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고, 시간 날 때마다 암기법 개발에 몰두하여 마침내 '스토리가 들어있는 암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암기법 덕분에 6,9,수능에서 1단원 관련 문제는 10초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1단원에 시간을 많이 쏟을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하기에 생명과학2 1단원만큼은 따로 혼자서 정리하지 않고 이 교재만 보면 정리할 수 있도록 1단원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 모아두었다. 이 교재를 통해 1단원은 더 이상 헛갈리는 단원이 아니라, 자신 있는 단원이 되어 생명과학2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

상세한 교재 설명

#0. 워밍업

간단한 5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기본 실력을 점검해본다.

#1. 생명 과학의 역사 암기법

'용식동 세자' 라고 불리는 인물이 권투 연습을 열심히 한 뒤, '라솔슈다' 라는 상대와 권투 경기를 펼친다. 그 뒤 친구와 음식도 먹고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만의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선보인다.

#2. 암기법 요약 정리

나만의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요약 정리본을 제작하여 수록하였다.

#3. 섬세한 개념 설명

생명 과학의 역사에 나오는 업적들 중 생소하고 낯선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을 ebs 교재를 참고해 수록하였다.

#4. EBS에 소개된 2가지 실험

EBS 생명과학2 교재 1단원에 실린 파스퇴르의 2가지 실험을 정리해두었다.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내신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에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5. 암기사항 극한훈련(4단계)

1단계. 인물 이름 보고 업적 적어보기

2단계. 시간 순서대로 올바르게 인물 배열하기

3단계. 인물과 업적을 보고 올바르게 연결짓기

4단계.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백지에 자유롭게 써보며 최종 점검

#6. 올해 평가원 기출에 적용해보자

실제로 2020년에 출제된 6평, 9평, 수능 1단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떤 사고과정을 거치며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7. 2020 수특/수완 O,X 10제

2020년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 1단원 문제들 중에서 헷갈릴 만한, 아니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뽑아 O,X 퀴즈 형태로 제작하였다. 오답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히 해설을 제공한다.

#8. 자작문제로 마무리

내가 직접 새로 제작한 자작 6문제로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부록1. 올해 교육청 1단원 기출 모음

2020년에 출제된 교육청 기출 문제들 중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부록2. 어디에든 붙일 수 있는 팔꿈 요약 정리본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복습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팔꿈 요약 정리본 4개를 만들어 수록하였다.

#0. 워밍업

- 1) 혈액 순환의 원리를 밝힌 인물은?
(하비 / 피르호 / 솔라이덴)
- 2) 동물 세포설을 주장한 인물은?
(솔라이덴 / 슈반 / 피르호)
- 3) 생물 속생설을 주장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 / 슈반 / 파스퇴르)
- 4) 종두법을 고안해 낸 인물은?
(린네 / 제너 / 피르호 / 하비)
- 5) 병원균을 규명한 인물은?
(코흐 / 란트슈타이너 / 모건)

- [정답]
- 1) 하비
 - 2) 솔라이덴
 - 3) 파스퇴르
 - 4) 제너
 - 5) 코흐

[나만의 암기법 맛보기]

- 1) **아자 하혈 흑흑**
를 떠올리면 된다.
- 2) **라솔슈피다. 용식동 세자**
를 떠올리면 된다.
- 3) **엔파스 유생**
를 떠올리면 된다.
- 4) **린제 이 종두법**
를 떠올리면 된다.
- 5) **코란모플레 병원 혈액 유펜**
를 떠올리면 된다.

5문제를 풀어보면서
원래 알고 있던 인물도 있고, 낯설고 생
소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대순으로 정리한 ‘스토리텔
링 암기법’**을 따라오다 보면, 전혀 헛갈리
지 않고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낯설어 보이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암기법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 이제 본격
적으로 암기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5. 암기사항 극한훈련

1단계) 업적 적어보기

1. 아리스토텔레스 :
2. 하비 :
3. 로버트훅 :
4. 레이우엔훅 :
5. 린네 :
6. 제너 :
7. 라마르크 :
8. 솔라이덴 :
9. 슈반 :
10. 피르호 :
11. 다윈 :
12. 멘델 :
13. 파스퇴르 :
14. 코흐 :
15. 란트슈타이너 :
16. 모건 :
17. 플레밍 :
18. 비들과 테이텀 :
19. 에이버리 :
20. 캘빈, 벤슨 :
21. 왓슨과 크릭 :
22. 코헨, 보이어 :
23. 멀리스 :

2단계) 시간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기

1. 멘델, 하비, 린네
->
2. 린네, 제너, 슈반
->
3. 에이버리, 플레밍, 란트슈타이너
->
4. 솔라이덴, 파스퇴르, 모건
->
5. 아리스토텔레스, 라마르크, 피르호
->
6. 코흐, 다윈, 비들과 테이텀
->
7. 멀리스, 멘델, 파스퇴르
->
8. 레이우엔훅, 다윈, 란트슈타이너
->
9. 플레밍, 코흐, 하비
->
10. 피르호, 캘빈, 슈반
->
11. 코헨과 보이어, 란트슈타이너, 피르호
->
12. 하비, 라마르크, 제너
->

#6. 올해 평가원 기출에 적용해보자

[3] 2021 수능 2번 문제

2. 표는 생명 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플레밍과 하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구분	생명 과학자	내용
(가)	A	페니실린을 발견함
(나)	B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냄
(다)	파스퇴르	① 생물 속생설을 입증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는 플레밍이다.
 ㄴ. ①은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ㄷ. (가)~(다)를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 (다)→(가)→(나)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해설]

<답 : 1번>

플레밍을 보는 순간

코란요플레

병원혈액유펜 가 떠올라야 한다.

: 플레밍(A) : 페니실린 발견(ot. 푸른곰팡이)

하비를 보는 순간

아자! 하혈(higher), 흑흑

가 떠올라야 한다.

: 하비(B) : 혈액 순환의 원리

파스퇴르를 보는 순간

멘파스

유생(촌) 이 떠올라야 한다.

: 파스퇴르 : 생물 속생설(생물은 생물로부터)

[순서]

권투 연습 -> 친구에게 파스, 유생촌

-> 코난 보며 요플레 먹기, 화장실

: 하비(나) -> 파스퇴르(다) -> 플레밍(가)

#7. 2020년 수특/수완 O,X 10제

1. 생존 당시 멘델은 유전학의 창시자로 여겨졌다. ()
2. 모건은 초파리에 대한 유전 연구를 통해 DNA 분자 구조를 규명하였다. ()
3. 왓슨과 크릭은 PCR 기기로 다량의 DNA를 얻은 후 DNA 구조를 밝혀냈다. ()
4. 파스퇴르의 실험은 제너의 종두법 시행보다 앞섰다.()
5. 유전물질은 DNA라는 것이 규명된 후 유전자의 기능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
6.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개체 변이의 원인을 돌연변이라고 설명한다. ()
7. 파스퇴르 연구의 결과로 항생제를 발견하였다. ()
8. 코헨과 보이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하였다. ()
9. 세포설을 주장한 사람은 피르호이다. ()
10.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이전에 존재한 생물로부터 유래' 한다는 것이다. ()

1. X
생존 당시 멘델은 유전학의 창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멘델은 일부 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2. X
모건은 유전자설을 발표했다. DNA 분자 구조를 규명한 사람은 왓슨과 크릭이다.
3. X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후에 PCR이 나오게 되었다.
4. X
제너의 종두법 이후에 파스퇴르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린제 이 종두법 -> 멘파스 유생촌)
5. X
유전자의 기능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1유전자 1효소설'이다.
(1유전자 1효소설 -> 에이버리의 폐렴쌍구균)
6. X
다윈은 개체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7. X
항생제, 즉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발견했다.
8. 0
9. 0
10. 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 생명과학2 시험은 킬러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비킬러 문제들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푸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 꼼꼼히 해서 지엽적인 비킬러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2) 1단원은 어렵지 않지만, 암기해두지 않으면 자주 헛갈리는 단원이다. 내가 이 자료를 통해 제시한 암기법은 1단원 학습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였다. 혼자서 1단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단순히 업적을 암기만 하지 말고, 그 업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EBS 수능특강/수능완성’에 나와있는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는 ‘생물 속생설’이 무엇인지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3) 교육청, 평가원 기출에는 올해 기출을 제외하고는 1단원 관련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 암기법을 통해 내용을 익힌 후에는 ‘EBS 교재’를 주기적으로 풀면서 암기사항을 까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혹 EBS 교재에서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기존의 암기법에 추가해서 지식을 쌓아가자.**

4) 생명과학2는 생명과학1과 달리 인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UAA/DCAF를 비롯한 **여러 사설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며 타임 어택 극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1단원 관련 문제를 보면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도 기존의 암기법에 스스로 추가해서 기억해두면 1단원은 전혀 틀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5) 아무리 괜찮은 암기법이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이 자료를 1회독하는 데에는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지만, 수능 때까지, 아니면 내신 시험 때까지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시간 날 때마다 봐야 한다.** 그러니 복습을 철저히 하자.

6) 내신 시험에서는 1단원을 더욱 자세히 다룰 가능성도 있다. 내신 시험에서는 내 암기법만을 가지고 공부하기 보다는, 암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 수업도 성실히 들으면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자.

이 자료를 끝낸 당신은, 생명과학2 고득점을 받을 첫 발을 내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단원들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꼭 1등급을 쟁취하길 바란다.